

인사를 나누었다. Delegate meeting에 박충서 교수와 김명호 교수가 참석하였고 이 meeting에서 1962년 AOCN 창설시 박충서 교수가 국립의료원 재직시 Sweden 교수와 같이 창설 멤버로 활동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호주, 태국 대표들이 차기 AOCN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를 권하였다. 그러나 박충서 교수와 의논 후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학회 창설된 것이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고 차차기에 개최 가능할 것이라고 사양하여 일본 대표가 대회 유치 의사를 밝혀 경선 없이 일본 동경으로 제 8차 대회 개최지가 결정되었다.

4. 한 - 중 의학 학술대회 (Korea-China Medical Conference)

대한신경과학회는 1997년 7월 9일 ~ 10일에 중국 북경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한 - 중 의학 학술대회의 분과학회로 참여하였다. 그러나 이 학술대회를 대한신경과학회의 공식적인 일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. 지금도 2년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의학학술대회에 대한신경과학회가 참여하지만 이것을 대한신경과학회의 공식적인 일정으로는 포함하지 않는데 한 - 중 의학 학술대회도 비정기적이었다는 점과 개최지가 중국이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같은 성격의 학술대회였기 때문이다. 표면적인 심포지움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국제적인 큰 심포지움 같아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Neurology



한-중 의학 학술대회 기념사진



한-중 의학 학술대회(북경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)
좌측으로부터 왕신대 교수(중국), 김명호 교수



한-중 의학 학술대회 참가 후 천단공원에서

session의 한국측 참가인원은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19명과 신경외과 개원의 2명으로 총 21명이었으며 중국측 참가자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주로 발표자만 참석하는 작은 심포지움이었다. 프로그램에 포함된 포스터 발표도 중국측에서는 발표가 없었다. 한 - 중 의학 학술대회는 학술적인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친선의 성격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되었던 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다. 그 결과 원래 의도와는 달리 한 - 중 의학 학술대회가 정례화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신경과학회를 비롯한 많은 분과학회도 정기적인 학술 심포지움으로 발전하지 못했다.

하나의 헤프닝으로 끝난 한 - 중 의학 학술대회는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. 우선 한 - 중 의학 학술대회는 학술적인 목적 보다는 정치적 성향으로 출발한 학술대회였다는 문제점이 있었다. 1992년 8월 한 - 중 외교수교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중국의사협회와 한 - 중 양국간 보건 및 의학발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3년 5월에는 양국 의사협회 회장이 한 - 중 의학 학술교류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 - 중 수교 5주년 기념행사가 치뤄지는 1997년에 중국 북경에서 한 - 중 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.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제 참가자인 분과학회 및 관련단체에는 전혀 홍보되지 않다가 1996년 후반에서야 대회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. 실제 한 - 중 의학 학술대회 참가 예정 분과학회 대표자회의가 처음 개최된 것이 1996년 9월 19일이었고 중국측에서 참여 학회를 통보한 것이 1996년 10월 21일이었으니 이미 촉박한 일정에서 학회를 준비하여야 했다. 더욱이 문제가 된 것은 중국측 대표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밖에 없었고 전화는 물론 팩스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. 1996년 11월 22일 처음 편지로 한국측 조직위원회 명단을 중국측 신경과학회 회장에게 보냈지만 결국 이 편지에 대한 답은 받지 못하였고 끝까지 중국측 조직위원회 명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심포지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.

당시 한국에서 구성한 조직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.

- 조직위원장 : 선우일남
- 위원 : 김범생, 김주한, 이병철, 윤병우

후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이때 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팩스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신경과학회를 비롯한 많은 분과학회도 명칭만 있을 뿐 실제 활동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심포지움이 개최된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다. 이렇듯 중국 학회와의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국분과학회 - 대한의사협회 - 중국의사협회 - 중국분과학회의 긴 전달 경로를 거쳐서 겨우 양국의 의사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한 토의는 거의 불가능하였다.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도 한국측에서 미리 계획을 다 짜서 보내면 중국측에서 항목별로 연제와 연자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학 학술대회를 여의도

63빌딩 대신 중국 북경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 잡아놓고 미국의사 대신 중국의사에
게 참여해 달라고 초대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. 학술대회 도중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-중 의학학술
대회가 이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 문화혁명의 결과로서 왕성히 활동할 장년층의 의
사들이 모두 숙청당했기 때문에 당시 중국에는 늙은 의사들과 아주 젊은 의사들만 남아있었다고
하였다. 중국 신경과 의사들과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 하면서 차츰 중국과 중국 의사를 이해하게
되었고 학술교류를 하기로 하여 1997년 대한신경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Zang Baozun, Zhao
Gang, Xiao Bo, Chen Haibo 등 4명을 초청하게 되었다. 그러나 지속적인 교류를 하기로 한 이
약속은 그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.